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세세생생이 달려 있어요

29면에서 계속

의 보살들도 그렇고 역대에 내려오는 조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왔다." 이러지는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딸이 어떻게 돼 있고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배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고 과거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자생중생들이 복잡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뜻은, 왜 요새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대로 나오지 그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 모두 자동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나가는 지금 생활 속에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오고 언짢은 일도 나오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뭐,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입력이 돼서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과거도 찾지 말고 미래도 찾지 말고, 현실도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단지 입력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된 데다가 다시금 맡겨 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자 운명도, 영계 성 세균성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이 생각하고 사시는 그것이 그냥 입력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어떡하면 사는 동안까지 애고 나 병고에 휘달리지 않고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느냐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 불(佛)이요, 말로 전달이 되고 통신으로 전달이 되고 뜻으로 전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 죽은 세상 산 세상이 전부 연결이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알라신교를 믿든지 티베트 불교를 믿든지,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법을 배운다면 모든 조상들과 일체 제불의 은혜도, 돌 쪼끼리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상승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자기가 은하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태양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위성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곤충이 될 수가 없고, 천 차만별의 일체 만물만생이 자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용도, 어떤 소원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공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리를 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요. 마음은 바다도 없기 때문에 배도 소용이 없고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산과 물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미국도 한 걸마요 문지방 너머도 한 걸마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찰나찰나 한 찰나에 넘나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죽은 세상 산 세상이지만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죠. 나쁜 일을 하면 교도소에 가고 감옥소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이런다고요. 또 남이 알지 못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남이 모른다고 그래서 지옥고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

면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행동 하나에, 이 마음먹고 행동 한 번 하는 데에, 허! 세세생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세생생이 달려 있는가 하면 자손 대까지 내려가면서 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처사가 직수 굿이 집을 지고 가는데... 스님네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처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꾸준히 짊어지고 가는, 아무 이유도 붙이지 않고 가는 그 행을 보고 '야! 하고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눈 뜨고 귀 뜯 사람한테 한 번 띄기만 하면 그게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는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대로만 여러분이 그냥 하신다면 그거는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게 잘못되게 되고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고 어떡하면 좋냐고 하기에 야단을 막 쳤습니다.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 놓고, 그것도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인제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냥, 다 뺏길 뻔 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좀 생각들이 있어야죠. 야단을 치고 나니까 내 마음도 안됐죠. 하지만 그대로 보았어요, 며칠 있다가 그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잘됐다고 좋다고 하고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미심쩍은 게 뭐냐 하면 그 한 찰나의 괴로운 거는 면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그런 걸 닦쳐오면 어떡할까,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자꾸자꾸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 자기가 거두어야 하고 자기가 뿌려서는 안 될 일이라면 냉정하게 단호히 끊고, 해야 할 일 이면 단호히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 세상에 조금도 어김이 없고 자유스럽고 즐겁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겠나 이겁니다.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학자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바깥으로 쪼달리고 다닙니다. 지금 뿌리가 썩어서 죽어 가는데 저 따 나무를, 남이 볼 때 크고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냥 살려 달라고 하니, 아니 그 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싹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냉철하고 좀 단호하게 인생을 돌아다볼 줄 알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걷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두 발을 만들어놨습니까? 기울지도 틀지도 말고 두 발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한 발만 없어 보십시오. 절름발이죠. 왜 두 손을 만들어놨습니까? 한 손이 없으면 병신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집을 거나 집지요. 이리니 한 다리 병신, 한 팔 병신, 한 귀 병신, 귀머거리, 한 눈 까막은, 이렇다면 여러분이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견해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본문은 1994년 6월 19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칼을 뽑았으면
그 칼로 내 동료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일체 만물의 은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법을 배운다면
모든 조상들과 일체제불의 은혜도
돌 쪼끼리 하나 나무 한 그루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고 분자로 화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해 주시는 응신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만 개도 되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딱 차게 다 응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 이겁니다. 만약에 소가 무명을 벗겨 달라고 애달프게 애원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면서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소 속에 들어가서 그 소 무명을 벗겨 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그 소 속에 들어간다면 소가 되시고, 한 찰나에 말입니다. 한 찰나에 무명을 벗겨 주고 나오시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의 무명을 벗기고 나오시고,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화하시고, 또 찰나에 화해서 부처가 되시고, 이렇게 찰나찰나에 나무시는 그 만 가지 법은 해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려면, 바로 평등공법으로서 문 없는 문으로 오고 감이 없이 여러분에게 응해 주시는 천차만별의 이름을 가진 여래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라고도 하지요.

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지옥고입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나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마음에 지옥고가 입력이 돼 있으니 그게 안 받고 될 법한 일입니까? 한 치도 에누리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거는 여러분이 꼭 받게 마련이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꼭 받게 마련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줬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렸지. 내가 참 많은 걸 갖다 주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남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은행에 돈을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찾아다 쓸 양으로 은행에 갖다 넣으시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남은 이렇게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저 희미하고 아리송하게, 들을 때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

조그만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크다고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마세요. 조그마한 데서도, 즉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의 뜻이 아마 거기에 맞는 거 같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여러분한테 말로 다 하리까? 내가 스스로 깨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반야줄을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항상 생활하는 데서 행선으로써 하십시오. 참나를 믿고, 그 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자체가 바로 햇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번뇌 망상이라고 합니다. 햇생각으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속지 마시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선장의 주장자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십시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바로 입력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재성이 되고, 고정물이 나올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 물로 바뀌어 나옵니다. 주장자에 한번 풀려서 나오는 그 마음은 바로 법이 되지만

풍국농산 유황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보리밭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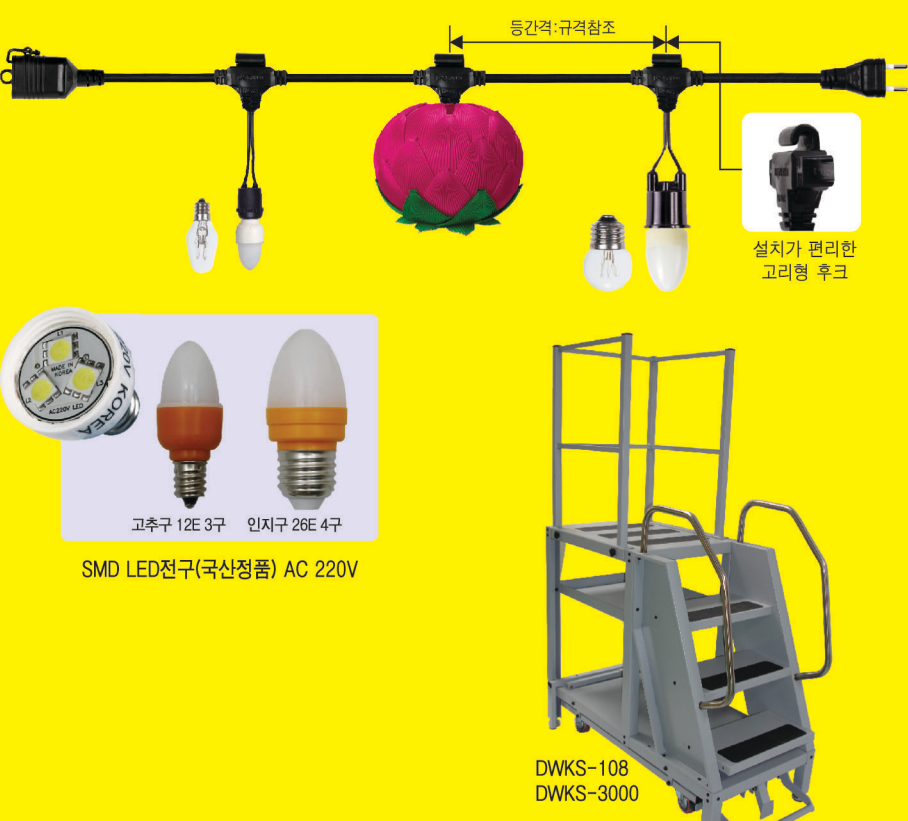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풍국농산 - 판매처: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100ml*60팩

지리산자락의 햇개굴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함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사찰 연등 및 전선(범광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8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광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형(노형자),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형,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형, 빨강
▶방생, 탈피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